

역대 노벨문학상 작품 '한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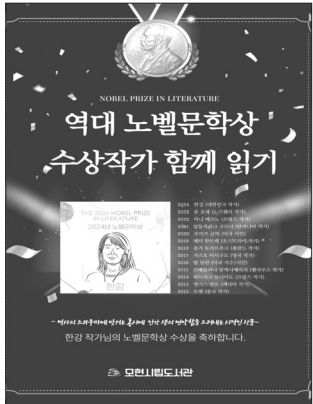
익산 모현도서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해... 11월까지 특별 서가 운영

익산시 모현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특별 서가를 준비했다.

모현도서관은 2층 종합자료실에서 다음 달 말까지 '역대 노벨문학상 함께 읽기' 특별 서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에는 올해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 82종, 111권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상자 '은 포세', 2022년 수상자 '아니 에르노'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배출된 1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시민들은 이 기간 전시된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하다. 전시 공간에는 연도별 노벨문학상 선정 작가와 대표작품, 선정 이유



유가 함께 전시돼 작가의 작품 세계와 수상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121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역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전당에 입성하는 기록을 썼다.

모현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도서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빌리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까지 보일 만큼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번 기획에 시민들이 다양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접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벨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이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작가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1901년 첫 수상 이후 현재까지 121명의 작가에게 수여됐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여성작가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수상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새만금 활기업 축제'... 26일까지 진행

새만금개발청·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공사·전개공 주최로 새만금의 미래산업 홍보·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공연 등

미래산업의 본거지, 새만금에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군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군산시 새만금 어린이랜드 및 GSCO에서 '새만금 활기업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주최한다.

기회의 땅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활기업 축제'는 새만금의 미래산업 기술 홍보와 새만금, 전북 지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행사와 문화예술행사가 공존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서는 새만금의 특색있는 행사로 새만금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24일은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음악과 게임 사이', 버스킹(거리연주) 공연 및 관객참여 오락대회,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전통문화공연'이 열린다. 같은 날 GSCO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새만금 근로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린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새만금 활기업 피크닉(소풍) △게임과 응원전이 펼쳐지는 단합 미니 체육대회 '새만금 활기업 미니 올림픽'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펼쳐 가수왕을 선발하는 노래자랑 '새만금 가수왕은 누구?'가 개최되며, △판타지 댄스뮤지컬 △찾아가는 미니콘서트의 공연도 함께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마지막 날은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쌓는 가족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새만금 퀴즈왕 △보물찾기 △릴레이 체험 △꿈과 환상의 버블쇼 △어린이 싱어송스 등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홍보부스, 체험부스, 지역 문화체험, 먹거리장터, 포토존, 기업부스가 준비된 별도 행사도 마련되어있다.시는 이번 행사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에게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만금을 홍보하고, 기업별 여건에 맞는 입주기업 간담회와 관광 투자유치 등 기업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14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 성료

'문해, 온 세상이 다가온다' 주제로...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성과 공유 자리 마련

군산시는 24일 월명체육관에서 학습자, 가족, 교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 온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제14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

'문해한마당'은 군산시의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통해 각 읍면동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1부 기념식과 2부 어울림 한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기념식은 군산대학교 음악학과 하모닉스 밴드의 관악 협주 공연과 이은아 최유치원 원생들의 합창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습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 문해교육 유공자 시상, 단체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지역 가수의 축하공연과 학습 단계별로 구성된 6개 팀의 학예발표회 후 초성 게임, 틀린 그림 찾기, 문해 골든벨 등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해 학습자들의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장 내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존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주민발달금기에서의 서류 발급 △카페 이용 및 패스트푸드 주문하기 △고속

버스 예매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 및 경비대원 10여 명과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산하 봉사단원 4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교육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비문해 및 저학력(중학교 졸업 미만)자는 시청 교육지원과(063-454-260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내달 7일까지

불편·불합리한 사항 등 접수... 행정사무감사 적극 반영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1월 15일 개최하는 제26회 제2차 정례회(11.15.~12.19.)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11.19.~11.27.)를 앞두고 시

민제보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고, 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민 불편 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제보는 익산시의회 누리집(열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우편(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의회 의사계, 063-859-4174), 팩스(063-859-4058)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방자치 경영 성과 '빛났다'

'제20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경영대전' 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24일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기업 육성 분야 행안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 지방자치 경영의 성과로, 시의 혁신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가져온 사업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 사업이다. 심사단은 '수산식품산업 육성도시'를 목표로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육성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후 수산분야 혁신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기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 예정 업체에 대해서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입주 선정기업 12개를대상으로 공동 투자협약(MOU) 체결행사를 개최하며, 수산 식품 기업 성장 동력에 본격적인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푸드지원센터-원광대 먹거리활성화체계 구축 맞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원광대학교와 함께 지역 먹거리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푸드재단이 지난 2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원수 푸드재단 센터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먹거리 활성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푸드재단과 원광대학교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농산물 증대·공급 확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푸드재단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으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엑셀 △문서 작성 △기획·생산 자료 구축 등을 진행하고 식품 안전 관리와 식품처리 방법 등을 교육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힘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내달 23일 김장체험 한마당·농촌활력대회 개최

익산에서 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가가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상생하는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23일 황동면에 위치한 익산석제품전시회보관에서 '2024 익산시 김장체험 한마당 및 농촌활력대회'를 개최한다.

김장체험 한마당은 고물가로 김장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체험행사다. 김장체험 꾸러미는 100% 국내산 농산물로 구성된다.

김장체험 한마당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리 볼 수 있는 즉석 체험과 차 안에서 간편하게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현장에는 농촌활력 대회도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청은 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063-861-0003)에 전화하거나 누리집(www.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com) 또는 익산물에서도 가능하다. 250세트를 신청받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